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 루터와 칼뱅의 남녀관계성과 결혼 및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루터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1. 남녀관계성(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이해
2. 결혼의 성례전적 이해 거부와 결혼에 대한 개혁적 해석
3. 기독교인의 결혼과 부부의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

III. 칼뱅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1. 위계질서를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남녀관계
2.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부부간 성적 의무

IV. 요약과 종합적 평가: 상호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진술

1. 남녀관계성(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이해
2. 결혼과 부부간 성적 결합의 문제
3. 이혼의 문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9.06>

*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ABSTRACT •

An Exploration of ‘Reformative’ Sexual Ethics of the Reformation:
Focusing on Luther’s and Calvin’s Understanding of Gender Relations,
Marriage and Sexual Intercourse

Lee, Chang-H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there has been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Christian faith and Confucianism in the Korean church. This is true to the church’s sexual ethical discourse and its ethical formation. How did and should Christian sexual ethics respond to the Confucian conviction, customs and practices of marriage and sexuality that have been existed in Korean society? Can Christian sexual ethics operate as an ethical alternative that effectively opposes sexual discrimination and promotes gender equal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the First Reformers’ sexual ethics - Luther’s and Calvin’s - focusing on their understanding of gender relations, marriage and sexual intercourse. In particular, I hope to explore in the sexual ethics of the Reformation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 that is conducive to reviewing critically the formation and reinforcement of patriarchal and hierarchical thought and practices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I will conclude with some suggestions which could help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correct its ethical thought and practices that endorse and support women’s inferiority to men and gender discrimination.

Key words: Luther, Calvin, Sexual Ethics, Gender Equality, Gender Relations, Marriage, Sexual Intercourse

I. 들어가는 말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교의 사상과 전통은 과거의 시점에 한정된 역사적 유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와 윤리적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신앙과 유교 전통 사이에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한 상호작용이 있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교개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長老)의 권위와 기능은 교회의 신학적 교회체제론적 정체성을 보존·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장로직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유교의 덕목인 효(孝)에 대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¹⁾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연대는 '혈연'의 끈으로 형성되고 또 강화된다. 그러나 효라는 덕목은 혈연의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연장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사회적으로 확대 적용된다.²⁾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교회에서 장로의 그것과 연속성을 갖는데, 교회에서 장로는 특별한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관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권위의 확장은 여성들에게는 좀처럼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 1) 체병관은 한국 개신교회의 중요한 유교적 특징으로 효의 실천을 강조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효의 덕목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Byung Kwan Chae, *Confucian Protestant Churches Crossing the Pacific* (Saarbrücken, Germany: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4), 89-100.
- 2) 박재주는 유교는 부모와 자녀 간 혈연으로 구성된 가정과 가정 밖 공적 영역으로서의 정치사회 공동체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으며 이 두 영역 모두 '효도의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구축하려 한다'는 점을 밝힌다. 박재주, 『동서양 세계관과 윤리관의 만남』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1), 383.

체의 60%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이에 비하면 리더십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여성 신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발표(2015년)에 따르면, 예장 통합, 기장, 기감 등 6개 개신교단 총회의 여성 총대의 비율은 전체 4012명 중 184명으로 4.6%에 불과했다.³⁾ 이러한 현실은 교회가 리더십과 남녀관계성의 틀을 형성해 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평등과 리더십 공유를 강조하는 성서의 가르침보다는 교회와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반영하고 지지하는 성서의 가르침이나 교회전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서와 전통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한국교회가 그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에토스와 문화 그리고 윤리적 지향의 영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교의 영향 곧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삼강(三綱)과 같은 도덕적 사회적 원리, 남녀의 관계를 주종(主從)이나 우열(優劣)의 구도로 보는 흐름을 뒷받침하는 음양(陰陽) 사상에 대한 해석과 적용, 효와 같은 유교적 덕에 대한 남성·중심적 해석과 사회적 확장 등이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부계 편향성 및 남성 우월주의는 토착적인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백여 년 간에 걸쳐 행해진 한국 문화의 ‘儒敎化’(Confucianization)를 위한 의도적 노력의 결과”라는 진단은 주목할 만하다.⁴⁾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이라는 주제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결혼 및 이혼, 성적 결합과 같은 성윤리의 주제들은 오늘

3) ‘올해 6개 교단 여성총대 비율 4.6%… 여성 참여 법제화· 양성평등 노력’, 『국민일보』, 2015년 10월 20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88224&code=23111113&sid1=chr>

4) 문옥표, “가족내 여성지위의 변화: 유교전통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9권 2호 (1996. 7), 61.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윤리적 과제라 할 것인데, 이 주제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남녀 간 위계적 관계형성, 가부장적 남성·우위적 문화와 사회질서 등의 논제는 비평적 성찰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내포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강조나 음양(陰陽) 사상에 대한 위계적 해석의 틀 안에서 남성과 여성(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월·열등이나 지배·종속의 구도로 설정되고 또 구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⁵⁾ 이와 대비적으로 삼강오륜의 위계적 질서를 극복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당위적 인식과 추구가 한국사회 전체 안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점, 생명 창출의 토대가 되는 음과 양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명의 보존과 변화의 과정에서의 둘 사이의 순환성 및 동시성을 강조하는 해석의 흐름 안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관계형성과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위한 여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⁶⁾ 등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유교 전통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위계적 해석의 흐름이 주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그 권위나 능력에서 우월하다는 식의 남성·우위적 시각이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돕는 역할을 본질적 성역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결정론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⁷⁾ 아울러 성적 결합의 관점에서도 성·평등적 다원적 이해와 문화가 한국 사회 안에 폭넓게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유교 전통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가문의 핏줄을 이어주는 목적을 이

5) Richard W. Guisso, "Thunder Over the Lake: The Five Classics and the Perception of Woman," in Richard W. Guisso and Stanley Johannesen (eds.), *Women in China: Current Directions in Historical Scholarship* (Lewiston, N.Y.: The Edwin Mellen Press, 1981), 48-49.

6) 김병환, "儒家的 生命觀 - 生生,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 『유교사상문화연구』 제 22집(2005.2), 307-36.

7) Wei-Ming Tu, *Confucian Ethics Today: The Singapore Challenge* (Singapore: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1984), 62-63.

루는 도구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성관계의 본래적 목적은 출산이다. 성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은 남편의 것이지 아내의 것은 아니었다.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아내와의 성적 결합을 별개로, 축첩 등을 통해 출산이 아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유교 사회는 일종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정당화했다고 볼 수 있다.⁸⁾ 특별히 정절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한 남녀에 대한 차별적 잣대 적용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완전히 자유로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의 작용은 이혼이나 재혼의 문제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 유교 전통 사회에서 이혼이나 재혼의 금지는 과부에게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정절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재혼은 정절의 책무 수행과 배치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정절에 대한 이러한 규범적 인식은 이혼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재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이후 정절의 책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통적으로 정절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남성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는다.⁹⁾ 정절에 관한 이중 잣대의 적용은 남녀관계에서 이혼에 대한 불평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정절의 관점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관대하기에,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도 더 관대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결혼과 성에 관한 전통적 관념, 관습, 실천 등에 대해 기독교 성윤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기독교 성윤리는 유교의 전통적 성윤리가 성차별적 경향을

8) 문옥표, “가족 내 여성지위의 변화: 유교전통을 중심으로,” 61-63.

9) 장공자, “유교의 전통 여성관에 대한 재조명,” 『민족사상』 제6권 4호(2012.12), 217; Mark Peterson, 김선민 옮김, “한국의 성: 조선사회와 민속문화의 몇 가지 측면에 한 간략한 검토,” (“Korean society and sexuality-An cursory examination of some aspects of Joseon society and folk literature”) 『국학연구』 제14집 (2009.6), 159.

떠거나 양성평등의 장애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차별(혹은 성불평등)을 교정·차단하고 양성평등을 지지·증진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어거스틴 전통에 서서 루터와 칼뱅은 기독교 성윤리의 전형적 이해를 형성하는 데 토대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결혼의 목적으로 후손의 출산, 성적 욕구의 해소, 남녀 간 계약적 관계 형성 등을 들었고, 루터나 칼뱅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결혼의 목적 이해의 기저에는 남성과 여성(혹은 남편과 아내)의 위계적 질서라는 관계론적 관념이 감지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거스틴, 루터, 칼뱅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고전적 성윤리는 결혼 제도 안에서 남녀 간 불평등이나 성차별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별히 루터와 칼뱅은 어거스틴 성윤리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분명히 극복하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성적 결합의 의미와 목적, 결혼의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해 개혁적인(혹은 전향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상세히 살피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동등한 지위 부여, 성적 결합의 목적으로서 부부간 상호 만족과 친밀한 관계 증진에 대한 강조,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거부 등을 고려할 때 루터와 칼뱅의 성윤리는 성차별(혹은 여성 억압)을 지양하고 평등과 상호존중의 관계형성과 성윤리적 실천을 강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와 칼뱅의 성윤리 곧 종교개혁 성윤리는 가부장적 남성·우위적 성윤리를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동시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의 규범적 방향성을 지지·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루터와 칼뱅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성윤리를 남녀관계성(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이해, 결혼과 이혼, 성적 결합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구할 것이다.¹⁰⁾ 특별히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윤리와 구조, 성차별적 혹은 여성·억압적 관념과 현실 등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또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종교개혁 성윤리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견지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함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적 이론과

10) 최근의 연구 중에 몇 가지 주요한 결과물들로는 박준철, 이오갑, 김규식의 논문을 생각할 수 있겠다. 박준철은 “종교개혁과 섹슈얼리티: 부부의 성에 대한 루터와 부처의 담론을 중심으로”(『역사학보』 197, 2008.3, 131-59)에서 루터 시대의 전통교회의 성윤리와 성직자의 성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루터의 개혁적 입장과 실천을 논구하였는데,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루터의 전향적 성윤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오갑의 “칼뱅의 결혼관”(『신학논단』 63, 2011.3, 175-98)과 “칼뱅에 따른 성(性)문제들: 간음과 음란, 매매춘, 성병, 동성애를 중심으로”(『장신논단』 40, 2011.4, 233-57)도 눈에 띈다. 앞의 논문은 칼뱅의 결혼관을 전체적으로 살핀 논문이다. 결혼에 대한 칼뱅의 기본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실제적 가르침, 그리고 이혼과 재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칼뱅의 결혼관을 신학적 윤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탐구한 연구이다. 뒤의 것은 칼뱅 당시의 성 문화와 풍속을 살피고, 칼뱅의 성윤리를 간음과 음란, 매매춘, 성병, 동성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구한 논문이다. 이오갑은 이 두 논문을 통해 칼뱅 시대의 성 문화와 윤리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칼뱅의 성윤리 사상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김규식은 “부부의 성(性)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 사상 연구”(『기독교교육정보』 29, 2011.6, 211-38)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교회가 견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부의 성의 핵심가치들을 탐색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별히 교회의 부부 성 교육에서 담지 해야 할 윤리적 가치들을 종교개혁자의 사상에 근거해서 살핀 점은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오늘 한국교회의 성윤리 형성에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는 종교개혁 전통을 검토하고 또 비평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극복되어야 할 전통적 인식과 관습을 드러내어 전통 안에서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의 가능성을 탐색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윤리적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감히 자평해 본다. 아울러 현대 성 윤리 담론의 쟁점들 곧 남녀의 성적 관계성, 결혼 및 이혼, 성적 결합 등의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담론의 전개와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천을 교정하는 방향성을 중요한 제안의 논점으로 삼을 것이다.

II. 루터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1. 남녀관계성(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이해

루터는 창세기 3장 주석에서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간 대상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으로서 하와를 연약한 존재로 묘사한다.¹¹⁾ 하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남성으로서 아담과 견주어 열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남녀관계성을 위계의 관점에서 규정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¹²⁾ 또한 루터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점, 3장 9절에서 타락 후 하나님의 낫을 피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말씀의 수용자 혹은 대화 상대자로 부르셨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으면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을 이해하고자 한다.¹³⁾

창세기 1장과 2장 주석을 통해 남녀의 성적 결합의 의미와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성적 결합을 향한 지향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어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며 남녀의 결합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1:28)는 하나님의 명령의 구체적 실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결합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데, 남성의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의 고유한 역할을 출산의 맥락에 위치시켜 해석한다. 곧 여성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목적

11)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 이하 *WA*) 24 (Weimar: H. Böhlhaus Nachfolger, 1900), 90-91.

12) Luther, *Luther's Works* (이하 *LW*) 1, 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8), 68-69.

13) *WA* 24, 74-75, 77, 95.

이란 출산에 있어서 남성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고 루터는 풀이한다.¹⁴⁾

그렇다면, 루터의 남녀관계성 이해는 주종(主從)이나 우열(優劣)의 관점에서 그 관계성을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단정해야 하는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루터의 성윤리 사상 전체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아니라는 평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체성이나 권위의 관점에서 남녀관계의 ‘동등성’을 견지하는 입장을 루터의 사상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힌리키(Paul R. Hinlicky)는 루터는 여성혐오(혹은 여성비하)를 옹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실을 부정하는 거짓이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¹⁵⁾ 그러면서 그는 루터의 창세기 2장 23절 주석을 주목한다.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한 풀이에서 후손의 출산을 높이 긍정하는데, 힌리키는 루터의 이러한 긍정을 출산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구현일 뿐 아니라 성별의 차이가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공동의 인간됨(co-humanity)으로부터 흘러나온 결실로 보는 인식에 근거한다고 풀이한다. 더 나아가 루터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 인간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공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둘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선한 창조질서의 맥락에서 논한다.¹⁶⁾ 공동의 인간됨이라는 개념이 남녀관계를 위계를 배제한 완전한 ‘동등’의 관계로 보는 견해를 내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녀관계성에 관한 루터의 사상을 권위나 역할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위계적 차별 보다 포괄적 동등성을 가리키는 방향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14) LW 1, 115.

15) Paul R. Hinlicky, "Luther Against the Contempt of Women," *Lutheran Quarterly* 2 (1988), 525.

16) LW 1, 137.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2. 결혼의 성례전적 이해 거부와 결혼에 대한 개혁적 해석

앞에서 언급한 대로, 루터는 어거스틴의 전통에서 결혼의 유익을 긍정하는데 그 유익으로는 성적 욕망의 해소, 출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달리, 결혼을 가톨릭적 성사(聖事)로 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속적 징표(sign)가 있다는 성례전적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루터는 결혼의 영속성이라는 성사적(聖事的) 특징에 대한 재검토(혹은 재해석)의 여지를 넓게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결혼의 제도』(1522)에서 루터는 성례전적 이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개혁적 견해를 전개한다. 이 논설에서 루터는 교회법이 제정한 바로서 결혼에 장애가 되는 14가지 요소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특별히 다섯 번째 조항 곧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재해석이 루터 개혁에 중요하다. 루터는 결혼을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창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창세기 1장 26-28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ordinance)로 이해한다.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 혹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일이다.”¹⁷⁾ 특별히 루터는 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일’로서의 결혼을 창조질서의 맥락에서 논구하면서, 결혼을 세속의 질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결혼은 다른 세상적 일들과 같이 외적 육체적 일임을 기억하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이동하고 구매하고, 이방인, 유대인, 투르크인 혹은 이단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다루는 것처럼, 나는 결혼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것을 금지하는 바보들의 법조항들을 무시하

17) LW 45, 18.

라.”¹⁸⁾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을 허용하는데, 이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이 금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허용은 결혼이 갖는 세속적 본성에 대한 루터 자신의 이해에 근거한다. 다섯 번째 조항에 관한 논의에서 ‘불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혼의 본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처럼 결혼의 세속적 의미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혹은 종교적) 특징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결혼의 성례전적 이해를 거부하지만, 루터는 여전히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보려 한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구속의 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속하며 그래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⁹⁾

또한 결혼의 성례전적 이해에 대한 거부는 루터의 이혼에 대한 개혁적 이해와 연속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전향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 루터는 크게 세 가지 사유를 제시하는데, 성적 불능, 간음, 성교 거부 등이다. 첫째, “육체적인 혹은 생래적 결핍 때문에 결혼을 위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이다.”²⁰⁾ 둘째, “간음이다. 그리스도는 간음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이혼을 허락하셨고,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²¹⁾ 셋째,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피하면서 결혼의 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다.”²²⁾ 결혼의 성사성(聖事性)을 부정함으로써 한편으로 결혼의 영속성을 재고(再考)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혼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루터의 성윤리는 대단히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18) 위의 책, 25.

19) Scott Hendrix, “Luther on Marriage,” *Lutheran Quarterly* 14/3 (2000), 340.

20) *LW* 45, 30.

21) 위의 책, 30-31.

22) 위의 책, 33-34.

세 가지 사유 모두에서 특정 성(性)에 특수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성차를 뛰어넘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루터는 이혼 사유의 정립에 있어서 남녀 간 차별의 요소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루터의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양성평등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루터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혼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 두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적극 추천하거나 권면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는데, 특히 영적 정부(혹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 예를 들어, 간음을 이혼의 사유로 말할 때, 자신의 '두 정부'론의 관점에서 이혼을 권하지 않는다. '두 정부'론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은 세속 정부(혹은 세속 왕국)를 두실 필요가 없으실 것이다. 참된 신자들은 악을 행하지도, 악에 저항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모두를 사랑하며, 불의를 기꺼이 감내하고 중국에는 죽음까지도 수용한다.²³⁾ 다시 말해, 영적 정부에 속한 이들을 삶에 지배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곧 타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자 하는 이타적 자기희생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참된 신자는 참으로 드물고 또 범법과 악행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따로 세우셨다는 것이다.²⁴⁾ 세속 정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통해 법적 질서를 세워 죄와 악을 제어하고 평화와 질서를 이루게 하심으로 인간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

23) Luther,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369.

24) 위의 책, 370.

‘두 정부’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영적 정부(혹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존재들이기에 별거하지 말 것이며 이혼도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영적 정부에 속한 참된 신자들은 모든 불의를 감내하고 철저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절대적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물론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기독교인이면서도 참된 신자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그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혼을 허락할 필요가 있다.”²⁵⁾ 이혼증서를 써주고 배우자를 버릴 권리에 관한 “이 법은 그러므로 영적인 정부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아내와 사는 이들의 경우에, 이 법을 쓰도록 허용하는 것을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²⁶⁾

3. 기독교인의 결혼과 부부의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

루터는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해 논한다. 루터에게 결혼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정생활을 경건하게 영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엇보다도 배우자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는 결혼 생활의 가치를 한껏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큰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셔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부르셨고 자녀를 낳고 키우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²⁷⁾ 결국 결혼은 하나님

25) LW 45, 31.

26) 위의 책.

27) 위의 책, 38.

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결혼은 참된 신앙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터전이 된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은 기저귀를 갈아 주는 아버지에게 웃음을 보내신다는 루터의 말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양육의 책임 수행과 기독교 신앙의 연관성에 대한 루터의 강조를 단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기저귀를 갈아 주는 아버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를 루터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곧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포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다."²⁸⁾

루터는 어거스틴의 전통에서 후손의 출산을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여긴다. 부부간 성적 결합의 중요한 결실은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 있다는 이해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적 결합은 필연적인 것이며, 남녀 간의 성적 관계는 결혼의 제도 안에서만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부부간 성적 결합의 다른 목적을 허용할 수 있는가? 즐거움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성관계는 가능한가? 루터는 기본적으로 부부간 성적 결합의 문제를 죄론과 연관하여 생각하는데, 결혼 제도 안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은 정당하게 허용되는 성적 욕망의 해결책이지만 이는 죄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았다. "성교는 죄 없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이를 용납하시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결혼을 통해 그가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죄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고자 하시기에 그렇다."²⁹⁾ 그러나 성적 결합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28) Scott Hendrix, "Luther on Marriage," 342.

29) *LW* 45, 49.

않는다. 루터는 성교를 통한 즐거움이나 친밀함의 추구를 전적으로 부정하게 보지 않는다. 성적 결합을 통해 부부는 상호간의 친밀감과 애정을 확인·증진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³⁰⁾ 부부간의 성관계는 단순히 죄된 성적 욕망의 해소의 통로로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만족과 관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향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³¹⁾ “상대방에 대한 욕망과 애정을 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결혼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랑과 신부에게 그러한 욕망을 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회피할 것이다.”³²⁾ 더욱이 부부가 함께 일구어가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루터의 생각의 틀에서 생각할 때,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친밀한 성적인 사귀를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칼뱅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1. 위계질서를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남녀관계

남녀관계를 논할 때, 칼뱅은 ‘평등’과 ‘위계질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한다. 먼저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은사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30) Susan C. Karent-Nunn and Merry E. Wiesner-Hanks (tr.), *Luther on Wom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37-38. 루터는 부부간 성적 결합을 결혼의 핵심으로 보았기에,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간음이나 성적 관계의 거부를 이혼의 사유로 생각했던 것이다.

31) 박준철, “종교개혁과 섹슈얼리티: 부부의性に 대한 루터와 부처의 담론을 중심으로,” 151.

32)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Weimar, 1883-1993), vol. 32, 373. 박준철, “종교개혁과 섹슈얼리티: 부부의性に 대한 루터와 부처의 담론을 중심으로,” 151에서 재인용.

똑같이 존귀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님나라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칼뱅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근본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고린도전서 11장 4-10절 설교의 한 대목을 옮겨본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어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³³⁾

이렇듯 영적인 관점에서 남녀 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칼뱅은 사회적 관계성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질서에 대해 논한다. 여성은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8-9절 주석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남성의 권위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권고한다. 여기서 칼뱅은 창조신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해석적으로 결합한다. “바울은 두 가지 근거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위를 주장한다. 첫째,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 보다 낮은 위치를 점해야 한다. 둘째, 여성은 남성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³⁴⁾ 이러한 위계질서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것이다. 칼뱅은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칼뱅의 저작 여러 곳에서 <폴리스>라는 말을 많이 발견하는데, ‘질서’를 뜻하는 것이다. 칼뱅에 따르면 이 질서의 원칙은 기독교 자유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서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이다.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남성과 남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계질서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³⁵⁾

33)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Corinthian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49, 727. Claude-Marie Baldwin, “John Calvin and the Ethics of Gender Relations,”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136에서 재인용.

34)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 by John W.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60), 232.

35) Claude-Marie Baldwin, “John Calvin and the Ethics of Gender Relations,” 139.

다만 이러한 남녀관계성에 대한 ‘질서’론적 해석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창조질서의 차원에서 ‘주어진 바’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해석의 방향을 견지해 간다면 남성과 여성(혹은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과 역할을 결정론적으로 규정하고 또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기조를 형성·강화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비평적 자세를 거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녀관계성 이해에 있어서 평등과 위계를 동시에 말하는 칼뱅은 이러한 비평적 자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다시 말해, 두 가지 관계 역동의 관점에서 결혼 안에서의 남녀관계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의 평등 곧 아내와 남편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부부 관계를 규정하는 주도적(혹은 토대적) 역동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결혼의 본질적 핵심으로 보는 칼뱅의 견해에서 두드러지게 입증된다고 하겠는데, 이제 이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부부간 성적 의무

칼뱅은 결혼을 계약(혹은 언약)으로 본다. 결혼의 목적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 성적 부도덕성으로부터의 배우자 보호 등을 말하는데, 이 점에서 칼뱅은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전통에서 있으며 또 루터의 이해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보다는 진일보한 결혼관은 제시한다. 칼뱅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호적 사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반자 관계 형성(companionship)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한다. 그러기에 결혼한 부부는 친밀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려고 열망하며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칼뱅의 생각이다. 여기서 칼뱅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출산으로 보는 고전적 이해를 뛰어넘는다. 이츠(Wilson Yates)가 지적한 대로, “칼뱅 이전에 결혼의 주된 목적은 출

산이었다. 그러나 칼뱅에게서 출산은 동반자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해석된다.”³⁶⁾

결혼을 계약으로 보는 칼뱅의 견해에서, 계약의 개념은 성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계약은 가부장적 특징을 갖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결혼을 계약이라 할 때, 칼뱅은 이러한 가부장적 특징을 남편과 아내 관계에 적용한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과 한 영으로 묶여 있다 해도, 각각 특수한 역할과 권위를 가진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며 아내는 남편을 돕는 이가 된다. 하나의 사회적 기구로서 결혼의 관계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에베소서 5장 22-26절 설교의 한 대목을 들어보자. “아내가 남편과 결합할 때, 그를 도울 존재로 주셨다. 아내는 남편의 몸의 한 부분이다.”³⁷⁾ 여기서 칼뱅은 권위와 역할의 차이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계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성서적 계약에 근거하여 설명할 때, 칼뱅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점을 주목한다. 백성이 계약을 깬다 해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계약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지위와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불가변성’에 대한 강조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점을 결혼 관계에 적용하면서, 칼뱅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계약에 대한 책임적 응답, 부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결혼계약의 지속 추구 등을 권면한다. 여기서 칼뱅은 ‘질서’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상호적 사랑과 협력의 관점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36) Wilson Yates, “The Protestant View of Marriage,” *Journal of Ecumenical Study* 22/1 (1985), 43.

37)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Carlisl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5), 565.

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2-26절 설교의 한 부분을 옮겨본다. “또한 여기에 특별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안에서 남편은 권위에 있어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 점이 아내에 대한 의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³⁸⁾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 칼뱅은 권위의 차이에 입각한 질서를 말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남편과 아내가 고유하게 말아야 하는 특수한 역할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그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계약으로서의 결혼의 불가변성과 결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헌신을 강조하는 칼뱅의 생각은 이혼에 대한 단호한 반대로 이어진다. 칼뱅은 이혼을 자기 몸의 일부는 찢어내는 것과도 같다고 비유하는데, 결혼계약을 통해 한편으로 물리적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었고 다른 한편으로 시간적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맺은 계약은 영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³⁹⁾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간음의 경우에는 이혼의 여지를 열어 둔다. 이 점에서 칼뱅은 이혼에 관한 한 루터보다 더 완고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완고함은 현실 생활에서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1561년 교회법에 따르면, 결혼생활 수행이 불가능 만큼 심각한 신체적 흠을 가진 경우 결혼은 무효가 되는가 하면, 이혼을 목적으로 간음을 수행한 경우는 ‘간음’임에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다.⁴⁰⁾

칼뱅은 부모로서의 책무와 성적 의무의 관점에서 평등을 말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 관점에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다. 부모 역할에서

38)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565.

39)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II* tr.,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72), 244-45.

40) A. Biéler, *L'Homme et la femme dans la morale calviniste*, 136-37. 이오갑, “칼뱅의 결혼관,” 『신학논단』 제63집(2011), 192에서 재인용.

의 동등됨을 말하면서, 칼뱅은 “우리는 여기서 권위가 아버지에게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주어지는 방식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만 자녀를 다스릴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명예와 권위를 주셨다.”고 강조한다.⁴¹⁾ 또한 성적 관계에서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칼뱅은 “남편과 아내는 선의를 가지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밝히면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대의 몸에 대해 완력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한다. 이 점을 부부의 성적 결합에 적용하면서, 칼뱅은 성적 의무 수행에 있어서의 평등과 상호적 책무를 역설한다. “사도 바울이 왜 양자에게 동등한 지위를 허용했는지 또 아내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답은 이것이다. 성관계에 관련해서 서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⁴²⁾ 부부간 상호적 성적 책무 수행의 중요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칼뱅은 기독교인들은 때론 성적 문제에 대해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³⁾

다만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부부의 성적 결합을 죄론과 연계해서 논한다. 칼뱅은 성적 욕망의 통제 불가함을 죄가 가져다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성적 욕구는 좋은 것이지만, 더 이상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견지한다. 그러나 성적 욕구는 통제되고 해소되어야 할 것인데, 결혼 관계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칼뱅은 강조한다. 그리하여 결혼은 성적 욕망의 치유 통로가 된다. 아울러 칼뱅은 부부간 성적 결합을 통해 남편 뿐 아니라 아내도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⁴⁴⁾ ‘건강한 성생활’을 강조하는데,

41)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tr., by Arthure Golding (Carlisl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755.

42)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137.

43) 위의 책.

출산 가능 연령을 넘긴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⁴⁵⁾ 이로써 보건대, 칼뱅은 부부간 성적 결합은 단지 출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상호적 사랑이 교류되는 자리이자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IV. 요약과 종합적 평가: 상호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진술

1. 남녀관계성(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이해

루터와 칼뱅 성윤리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혹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성과 조화로운 공존을 강화하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여 남녀관계를 위계질서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형성해 가는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핀 대로, 루터에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운 바이고 창조의 질서에 속한다. 루터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성서주석에 입각하여 남성은 말씀의 수용자로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이해함을 보았다. 이 점에서 루터의 견해는 남성과 여성(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러하기에 이러한 질서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루터의 남녀관계성 이해에서 평등주의적 관점을 수용할 여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인가? 필자는 루터에게서 분명하게 평등주의적 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본 대로, ‘공동의 인간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배우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로 존중하라고 조언하는 루터는 남녀관계성 이해에 있어 평등주의적 관점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 않는다.

44) Claude-Marie Baldwin, "John Calvin and the Ethics of Gender Relations," 138.

45) John Witte Jr., "Between Sacrament and Contract: Marriage as Covenant in John Calvin'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 33 (1998), 52.

이런 맥락에서 루터 성윤리의 현대적 전개에 있어서 루터에게서 발견하는 평등주의적 기조를 해석적 실천적 핵심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칼뱅의 남녀관계성 이해에는 양면성(혹은 긴장)이 있는 듯하다. 영적인 관점에서 칼뱅은 하나님 앞에서의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남녀관계에 위계질서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결혼을 성서적 계약론의 관점에서 논하면서도, 칼뱅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해에 있어서 양면적 입장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성서 계약의 가부장적 특징을 부부 관계에 적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계질서의 틀 안에 설정하는데, 특별히 권위의 관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를 주목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약적 성실성과 상호협력이라는 규범적 당위성에 상응하여, 칼뱅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계약에 대한 개별적 준수와 동반자적 헌신을 권면하는데, 이 점에서 칼뱅은 남녀의 역할의 고유한 가치와 결혼계약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히 성적 책무와 부모로서의 양육 책임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평등을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칼뱅의 위계성의 논지가 교회 안팎에서 가부장적 성차별적 문화나 구조를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지 않도록 선명하게 비평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남녀간 '동등성' 논지가 위계적 질서 관념을 감싸거나 이끌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의 역동을 일구어가는 방향으로 해석과 적용의 진로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칼뱅의 성윤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칼뱅은 이미 이러한 진로를 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결혼과 부부간 성적 결합의 문제

앞에서 살핀 대로, 루터와 칼뱅은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결합은 근본적으로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정당화와 함께, 성적 결합의 ‘목적’의 관점에서 확장된 신학적 윤리적 견해를 전개한다. 성적 욕구는 타락의 결과이며 성적 관계에서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루터와 칼뱅은 결혼의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성적 결합을 통해 성적 욕구의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게 되며 이런 맥락에서 결혼은 죄악의 결과로서의 성욕에 대한 치유의 통로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루터가 성교의 거부를 이혼의 사유로 고려한 것은 성적 결합의 배제가 결혼의 중요한 목적으로서의 출산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적 욕구의 적절한 해소를 위해 부부의 성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루터가 결혼을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으며 부부의 성적 결합이 상호 만족과 사랑을 체험케 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해도 견지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칼뱅은 부부간 성적 결합의 의미를 성적 욕구의 표출이나 해소의 통로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책무와 동반자 관계의 증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앞에서 본 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대한 성적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남편 뿐 아니라 아내도 성적 결합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 점을 생각할 때, 칼뱅은 분명히 성적 결합에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출산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 형성이며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향유로부터 흘러나오는 결실 중 하나가 출산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칼뱅은 부부간 성생활의 의미를 동반자로서의 친밀한 상호관계 형성과 증진의 차

원으로 끌어올려 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산 가능 연령 이후에도 부부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보건대, 루터와 칼뱅은 부부간 성적 결합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전통적 이해 보다 더 넓은 지평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긍정한다면, 성적 결합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도구적 이해, 정절에 관한 이중 잣대 적용, 성의 목적에 대한 협소한 이해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유익할 것이다.

3. 이혼의 문제

기본적으로 루터는 이혼에 반대한다. 간음,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등 이혼이 가능한 사유들을 제시하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 해도 적극적으로 권면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대로, '두 정부'론에 근거하여 루터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루터는 신자라고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혼을 허용한다. 이혼은 참된 신자의 삶의 결정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참된 신앙을 부부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타적인 자기희생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의 언약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다. 특별히 루터가 결혼의 성례전적 이해를 거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거부에는 성사로서의 결혼의 '영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함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결혼의 성례전적 영속성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루터는 이혼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칼뱅도 이혼을 금지한다. 다만 루터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설정한다.

이혼을 허용하는 루터의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칼뱅은 간음의 경우만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허용은 성서적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직하게 상응하여 ‘간음’을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 사유를 한 가지로 제한한 점을 생각할 때, 칼뱅은 루터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칙’의 ‘현실’에 대한 적용을 고려한다면 루터와 칼뱅에 대한 비교·평가는 단순치 않은 듯하다. 칼뱅은 이론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더 유연한 적용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로써 보건대, 기본적으로 루터와 칼뱅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견지하면서 예외적 사유를 들어 조심스럽게 이혼 허용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데, 그러한 여지 마련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서는 루터의 경우 성례전적 신학에 대한 재해석을 그리고 칼뱅의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유연한 원칙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허용의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루터와 칼뱅이 공히 이혼의 사유로 들고 있는 ‘간음’을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한 쪽 배우자가 수행한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맺은 언약 곧 동반자적 관계에의 헌신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혼은 결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약속을 침해할 때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루터와 칼뱅의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성윤리를 논구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문화와 구조, 성차별적 관념과 현실 등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또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종교개혁 성윤리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몇 가지 신학적 윤리적 제

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들이 기독교 성윤리 담론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사회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사고와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제안은 성윤리 관련 성서본문 해석에 관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남녀관계성 이해에 있어 성서를 유일한 근거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근거로 삼아 왔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개신교단들도 여럿 있지만, 여전히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교단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자의 경우, 반대의 주된 근거는 성서다. 대표적인 근거 본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본문(14장 33-35절)인데, 이 본문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한국교회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본문을 고찰할 때 모든 시대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사회라는 특수한 정황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전한 권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남녀관계성 이해를 비롯한 다양한 성윤리 주제들을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 성서를 중요한 근거로 참고할 때 그동안 견지해 온 성서해석의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성(性)에 관한 특정 본문들에 내재하는 역사적 문화적 제한성(혹은 한계)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역사적 사회문화적 한계나 특수성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매우 신중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한계를 벗겨내고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에 부합되는(relevant) 방향에서 신학적 윤리적 메시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부부간 성적 결합의 목적,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 등의 성윤리 주제들에 대한 신중한 비평적 성찰과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에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부부간 성적 결합의 의미 등 성(性)에 관한 담론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루터와 칼뱅이 마련해 둔 기반을 존중하고 또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교의 목적은 출산만이 아니라 부부간 상호적 즐거움과 친밀한 관계성의 증진이며 그러하기에 남편과 아내는 성생활에 대해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권면을 따른다면, 한국교회는 동반자 관계 증진과 건강한 관계 보존을 위해 부부간 성적 결합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을 주제로 개방적이고 건설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절에 대한 유교의 강조에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는 남성의 정절보다 여성의 정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여성의 성에 대한 관심과 담론을 억압하는 경향도 탐지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통보다도 유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유교의 정절 이념을 성적 순결과 연계하여 강화하려 한다거나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출산의 도구의 관점에서 '환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한국교회는 성윤리 담론이 여성과 남성의 성적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신장하고 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비평적 논의를 포함하여 이혼에 대한 윤리적 담론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성사적(聖事的) 관점에서의 결혼의 영속성을 논하는 유의미한 연구사가 형성되어 있

는데, 대표적인 연구자를 꼽으라면 팔리(Margaret Farley)를 생각할 수 있다. 팔리는 결혼을 포함하여 헌신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논하면서, 이 상황들에서 헌신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속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헌신의 의무 수행이 더 이상 원래 설정했던 목적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의무가 현재의 헌신의 의무와 충돌하거나 우선적 가치를 차지하게 될 경우 등이다. 상황과 동기에 대한 분석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헌신의 실행 불가능성은 영속적인 결혼에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팔리는 주장한다.⁴⁶⁾ 루터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이론상 결혼의 성사성(聖事性)을 부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유교의 엄격한 입장과 성서의 권면에 근거하여, 실제로는 결혼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유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유대로서의 결혼이라는 윤리적 이상은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이혼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결혼관계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또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유대'를 고수하라고 강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깨진 관계를 치유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에게 또 연관된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헌신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46) Margaret A. Farley, "Divorce and Remarriage: A Moral Perspective," in William P. Roberts (ed.), *Divorce and Remarriage* (Sheed & Ward, 1990), 119-20.

참고문헌

- 김병환. “儒家의 生命觀 - 生生,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 『유교사상문화연구』 제22집 (2005), 307-36.
- 문옥표. “가족 내 여성지위의 변화: 유교전통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9권 2호 (1996), 59-78.
- 박재주. 『동서양 세계관과 윤리관의 만남』.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1.
- 이오갑. “칼뱅의 결혼관.” 『신학논단』 제63집 (2011), 175-198.
- 장공자. “유교의 전통 여성관에 대한 재조명.” 『민족사상』 제6권 4호 (2012), 193-230.
- Peterson, Mark. 김선민 옮김, “한국의 성: 조선사회와 민속문학의 몇 가지 측면에 한 간략한 검토.” (“Korean society and sexuality-An cursory Examination of Some Aspects of Joseon Society and Folk Literature”) 『국학연구』 제14집 (2009), 151-165.
- Baldwin, Claude-Marie. “John Calvin and the Ethics of Gender Relations.”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133-43.
- Chae, Byung Kwan. *Confucian Protestant Churches Crossing the Pacific*. Saarbrücken, Germany: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4.
-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Translated by Arthure Golding. Carlisl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 _____.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lated by John W.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60.
- _____.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Carlisle, Pen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5.
- _____.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II*. Translated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72.
- Farley, Margaret A. “Divorce and Remarriage: A Moral Perspective.” In *Divorce and Remarriage*. Edited by William P. Roberts. Kansas City: Sheed & Ward, 1990.
- Hendrix, Scott. “Luther on Marriage.” *Lutheran Quarterly* 14/3 (2000), 335-50.

- Karent-Nunn, Susan C. and Merry E. Wiesner-Hanks (tr. & ed.). *Luther on Wom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24. Weimar: H. Böhlhaus Nachfolger, 1900.
- _____. *Luther's Works* 1. Edited by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8.
- _____. *Luther's Works* 45. Edited by Walther I. Brandt.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 Tu, Wei-Ming. "Probing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and the Family*. Edited by Walter H. Stole and George A. Devos. Albany: SUNY Press, 1998.
- _____. *Confucian Ethics Today: The Singapore Challenge*. Singapore: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1984.
- Witte Jr., John. "Between Sacrament and Contract: Marriage as Covenant in John Calvin'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 33 (1998), 9-75.
- Yates, Wilson. "The Protestant View of Marriage." *Journal of Ecumenical Study* 22/1 (1985), 41-54.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7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03일

 • 국 문 초 록 •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과 유교 전통 사이에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한 상호작용이 있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한국교회의 성윤리 논의와 형성에도 적용된다. 한국사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결혼과 성에 관한 유교적 관념, 관습, 실천 등에 대해 기독교 성윤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기독교 성윤리는 유교 성윤리가 성차별적 경향을 띠거나 양성평등의 장애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차별(혹은 성불평등)을 교정·차단하고 양성평등을 지지·증진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루터와 칼뱅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성윤리를 남녀관계성(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이해, 결혼과 이혼, 성적 결합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구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윤리와 구조, 성차별적 혹은 여성·억압적 관념과 현실 등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또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종교개혁 성윤리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견지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함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적 이론과 실천을 교정하는 방향성을 중요한 제안의 논점으로 삼을 것이다.

주제어: 루터, 칼뱅, 성윤리, 양성평등, 남녀관계성, 결혼, 성적 결합
